

진보당 중복 논란 ... 주사파 민혁당 출신이 당권파에

(從北)

(주체사상 신봉)

당 대표 선출 앞두고 계파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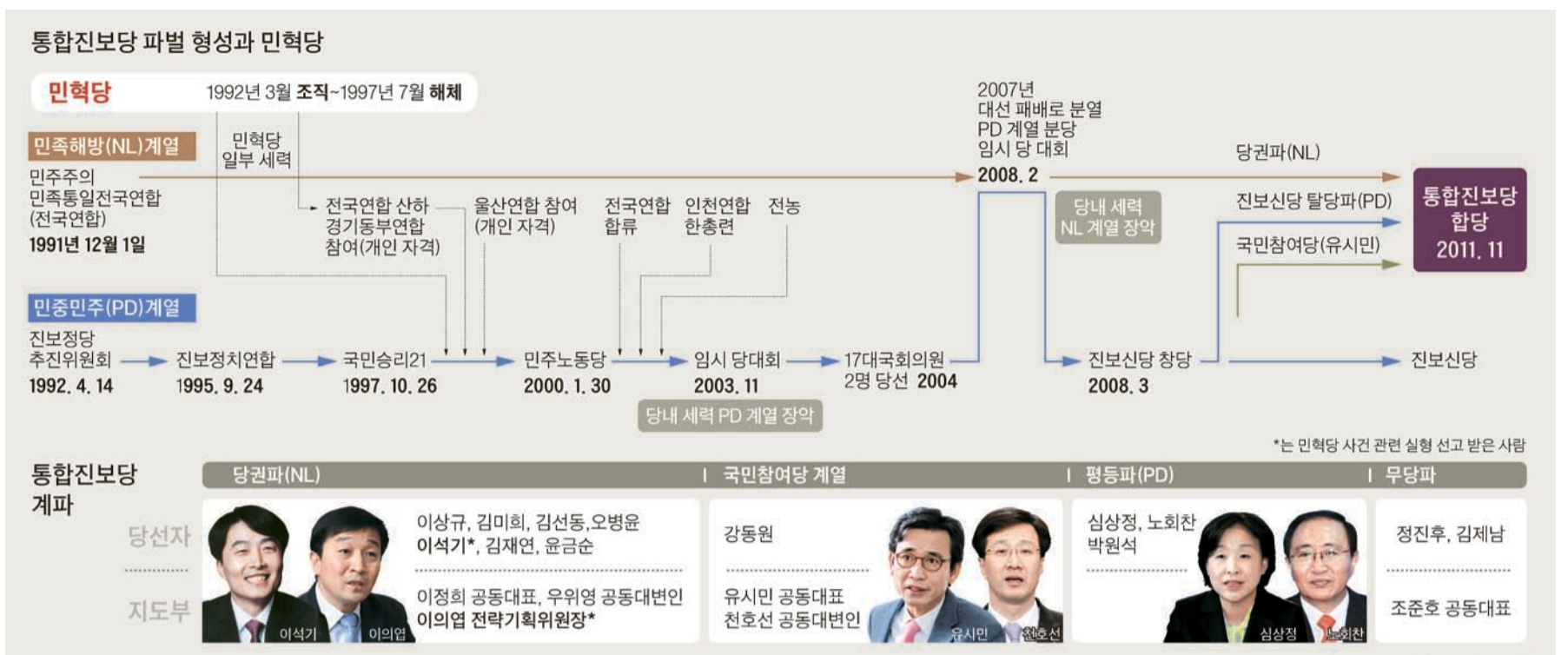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에 휩싸인 통합진보당을 둘러싸고 중복(從北)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비례대표 2번 이석기 당선인이 논란의 중심이다. 향후 당대표와 대권 후보 선정 과정에서 계파 간 입장 차이에 따른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 현재 당권파는 NL계 출신이 주류다. 문제는 당권파 중 일부가 민족민주혁명당(이하 민혁당) 사건 관련자라는 데 있다. 1998년 공안당국에 적발된 민혁당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주요 강령으로 삼았다.

이석기 당선인은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당 전략기획동인 이의업 선거대책본부장도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 북 선거구에서 낙선한 김창현 후보는 98년 적발된 영남위원회(이적단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민혁당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영남위원회도 민혁당 산하 조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혁당 재건파, 정치권에서 중복활동**=민혁당은 '강철서신'으로 유명한 주사파의 대부 김영환씨와 하영욱(광명성), 박모(관악산 3호) 씨를 중앙위원으로 해 만들어진 지하 운동조직이다. 김씨는 91년 5월 북 공작원의 안내로 서해상에서 잠수함을 타고 북에 다녀온 후 민혁당을 조직했다.

하지만 정작 김씨는 묘향산 별장에서 김일성을 만난 후 혼란에 빠진다. 김씨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이 보여준 현실은 기대와 전혀 달랐다"며 "진정한 주체사상(인간중심 철학) 외에 김일성·김정일 부자, 계획경제, 국유화 등은 버려야 했다"고 고백했다. 이와 관련, 한기홍(『진보의 그늘』 저자)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민혁당 해체 후 하영욱씨를 비롯한 일부 하부 조직원들은 당 재건 활동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NL계의 핵심으로 학생운동을 한 최흥재(은평갑 새누리당 후보)씨도 "민혁당 재건파가 정치권에 들어와 중복활동을 이어갔다"며 "국민의 대의자로서 책임을 지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현재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중복 씌우기에 대한 반발도**=이와 관련해 통합진보당 측은 "과거 전력을 문제 삼는 것은 전형적 색깔론"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명을 요구한 한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이석기 당선인은 사상범"이라며 "민혁당 사



비례 경선 부정 의혹 이석기 포함 당권파 2명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 김영환은 김일성 만난 뒤 공개 전향

NL출신 최흥재 “현재 입장 밝혀라” 진보당은 “사상 검증 강요 말라”

건도 총책임 김영환씨 진술 외에 신빙성 있는 근거나 본인의 인정 진술 등 객관적 팩트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며 사법부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 당선인은 2005년 국군기무사령부가 국정감사에 '간첩 분류'라는 자료로 제출한 것이 언론에 실명 보도되자 기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보안사범이지만 간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다른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학생운동 때와 달리 공당(公黨)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뜻 아니냐"며 "사상 검증 강요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탐사팀 deep@joongang.co.kr

7곳이 선거인단보다 투표자가 더 많아 “일부 선거구선 봉인도 날인도 없었다”

▶ 1면 '통합진보'에서 이어집니다

논란 커지자 전당대회 3주 연기

실제 통합진보당 현장투표에선 선거인단 수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은 투표소가 7군데나 발견되기도 했다.

이청호 위원장은 이와 함께 민노당 업무를 10년 넘게 담당해온 전산관리업체가 이번 비례대표 선거 실무를 맡았으며 민노당 출신 인사의 지시로 투표가 진행되는 도중에 온라인 투표내용을 알 수 있는 '소스코드'를 세 차례 열람했다고 폭로했다. 당 일각에선 소스코드를 건드릴 경우 투표자 수와 해당 후보의 기호를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는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대한민국 정치를 바꾼다고 설레발을 치는가"라고 비판했다.

반발과 폭로가 잇따르자 당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승교 변호사)는 18일 전국 시도 및 지역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20일까지 현장투표소에서 사용된 선거인명부 원본과 투·개표록, 투표 용지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당 비례대표선거 진상조사위원회 앞으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우위영 당 대변인도 "다음 주까지 진상조사위 활동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통합진보

당의 내부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현행 선거법엔 처벌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은 논란이 확산되자 다음 달 19일로 예정됐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6월 3일로 연기했다.

이번 의혹은 당 내부에서 터져 나온 데다 국민참여당 출신들이 주로 제기하고 있어 당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으로 변질 수도 있다. 통합진보당은 운동권 세력 중 '자주파'로 불리는 민족해방(NL) 계열이 이끌던 민노당 출신, '평등파'로 불리는 민중민주(PD) 계열 중심의 진보신당 탈당파, 유시민 전 의원이 중심이 된 국민참여당 출신이 손을 잡고 만든 정당이다. 형식적으로 이정희(민노당)·심상정(진보신당)·유시민(국민참여당)·조준호(민노당) 공동대표 체제지만 당권은 '범경기동부연합'으로 불리는 민노당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 출신이 관련된 부정선거 의혹은 처음이 아니다. 이정희 대표는 지난 3월 민주통합당 김희철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보좌관의 여론조사 조작 시도가 발각되자 사흘간 버티다 후보에서 사퇴했다. 진보신당의 한 인사는 "2006년 민노당 대표 선거 때는 특정 정파가 참관인을 동행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곳에 '잠깐 투표소'를 설치한 뒤 대거 투표하게 했다"며 "이번에도 그런 부정행위가 똑같이 벌어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BORN TO DRIVE

NEW GS250 출시기념 소모품 평생 무상 서비스

[4월 구매고객에 한함]

NEW GS 250 출시

Great Spring has come!(4/21~)

www.lexus.co.kr

상기 서비스는 10년, 20만Km 주행기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진시점으로 문의바랍니다.

LEXUS

렉서스 전시장 서울 080-924-9000, 용산 080-799-0500, 강남 080-555-3579, 강서 080-924-9001 | 분당 080-683-5000, 일산 080-961-0500, 용인영교 080-888-5000 | 인천 080-330-4300
 부산 080-310-7000, 해운대 080-858-1500 | 창원 080-858-7711 | 전주 080-236-7743 | 광주 080-384-7733 | 대구 080-762-7000 | 포항 080-293-7000 | 대전 080-500-3369 | 천안 041-569-3368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평균: GS250(배기량 2500cc, 공회전상 170kg, 저속 65km/h, 복합연비: 99km/l(도시연비: 86km/l, 고속도로연비: 119km/l) 평균: 4.4등급, 복합CO2배출량: 180g/km *이 연비는 공회전상 및 저속에서 측정되며, 운전방법, 차량상태, 정비상태 및 운전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